

SOCIETY “동학·천도교, 일제시대 민족 등불이자 자긍심”

2025년 4월 9일 수요일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인 심정섭씨가 8일 동학창도 제165주년을 맞아 본보에 동학 관련 자료 5점을 독점 공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심정섭 지도위원, 영암 교구장·천도교회 월보 등 5점 공개

손병희·박인호 등 민족대표 48인…日 강제병합 성토하기도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단순한 종교를 넘어 민주주의와 항일투쟁 정신을 드높인 동학의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하는 문서가 공개됐다.

8일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인 심정섭씨(82·광주북구)는 동학창도 제165주년을 맞아 본보에 동학 관련 자료 5점을 독점 공개했다.

이중 천도교 영암군 교구장 임명장의 2점 크기는 가로 18.5cm, 세로 21cm이다. 상제교 신도증의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9.5cm이고, 임명장(교첩)의 크기는 28cm, 세로 23cm이다. 천도교회월보의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23cm로 이뤄졌다.

동학(東學)은 천주교에 대항하고, 양반 사회의 모순과 피탄 속에서 사회 윤리의 퇴폐성을 절감하고자 1860년 경주에서 수운 최제우(1824~1864)가 창도했다.

1864년 최시형(1827~1898)이 제2세 교주가 되자 동학의 교서가 전국 8도에 널리 전파됐다. 그는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과 ‘옹당유서’를 진행해 종교로서의 동학을 정립했다.

1984년 전라도 고부에서 남접대접주였던 전봉준이 ‘보국안민(輔國安民) 사상’을 외치며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자 최초의 항일 독립운동인 ‘동학혁명’에 나섰다.

당시 최시형은 교주로서 동학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의암 손병희(1850~1925)는 북접대접주로서 최시형을 보좌했다.

3세 교주가 된 손병희는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듬해 동학을 천도교(天道教)로 개칭하고, 포교와 함께 항일 운동에 헌신했다. 1908년 박인호(1855~

1940)에게 교주를 인계했다.

이때 천도교의 교세가 가장 왕성했다. 전국에 천도교 교리와 보통교육을 가르치는 교리강습소를 700여 개가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인 포교 활동 덕분에 1910년대 신도가 300만명에 달했다.

이후 순병희는 대내외적으로 천도교를 대표,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는 등 민족운동을 진작한 조선의 참스승이 됐다.

박인호는 교단을 다듬고, 독립운동자금 집행과 조직 동원 등을 담당했다. 이후 3·1운동 때 손병희와 함께 만반의 준비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민족대표 48인에 이름을 올렸다.

천도교는 조선의 정치·경제적 해방을 목표로 독립·청년·사회운동 등을 벌인 ‘신간회’ 출범과 운동도 주도했다.

심 지도위원회에 공개한 천도교 영암군 교구장은 박인호가 정만권에게 1911년 2월 22일과 1918년 11월 25일에 수여했다.

심 의원은 “정만권은 박인호의 수행원으로 동학혁명과 3·1운동에 참여한 사실

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조경한 선생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상제교 신도들은 충남 청양군에 거주한 안성덕이 1927년 대법사(교주) 김연국(1857~1944)에게 받은 것이다. 상제교는 1917년 최시형의 수제자였던 구암 김연국이 천도교에서 나와 1925년 계룡산에서 창시한 동학 계열의 민족종교다.

김연국, 손병희, 송암 손천민(?~1900)은 ‘동학 3암’으로서 2세 교주 최시형의 수제자였다.

1925년 창간·1928년 3월 발행된 천도교회월보는 천도교 기관지로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사상이 깃들어 있어 조선청년들의 우상이 됐다. 서울 주재 각국 영사관에 일제의 강제 병합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비밀리에 보내는 등 민족운동을 전직했다.

심정섭 지도위원은 “동학혁명과 3·1운동을 주도한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 상제교 자료 5점은 민족의 자긍심이다”면서 “암울한 일제시대에 민족의 등불이었다”고 평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북구, 지역 여행업계 지원 ‘착착’

광주 북구는 지역 여행업계 지원을 위한 ‘북구상생 힐링투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북구상생 힐링투어는 작년 발생한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은

지역의 관광·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율해 저여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은 북구에 소재지를 둔 여행업계가

지급한다. 북구는 구비 5000만원을 투입해 최대 25개의 업체를 지원하며, 오는 21일 까지 참여 여행사를 모집한다.

힐링투어의 여행 상품은 1일 코스이며 서 북구의 관광지 1곳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투어 운영에 제공되는 종식과 간식, 필 요한 차량 임차 시에는 북구 소재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이산하 기자 goback@

한국인은 K-낙산균

국내 최초 특허
한국인 유래 특허 균주 함유

VHOMIE+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K-낙산균 200 mg, 낙포장 200 mg,
보풀리 100 mg, 유산균 10 mg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K-낙산균 200 mg, 낙포장 200 mg,
보풀리 100 mg, 유산균 10 mg

문의전화 1588-8529

제조원 엔피케이(주) | 유통판매원 비타민하우스(주)

광주 서구 왕버들 ‘2025 올해의 나무’ 선정

전국 총 10그루…전남 진도 배롱나무도

광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왕버들 나무가 ‘2025 올해의 나무’로 선정됐다.

8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분포하는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증진하고 지역 관광 자원화 차원에서 ‘2025 올해의 나무’를 선정했다.

보호수 분야에서는 광주 서구 왕버들, 강원 영월 소나무, 서울 송파 느티나무, 강원 인제 돌배나무, 부산 기장 꽈솔이 선정됐다.

‘2025 올해의 나무’ 선정은 보호수가 가진 윤치와 멋 형태 등 생태·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상생의 역사 등 인문학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보전 관리가 필요한 노거수 수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9월부터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총 61그루의 보호수, 노거수를 추천받아 전문심사단의 서류

심사를 거쳤다.

이후 현장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종합해 2개 분야(보호수·노거수)에서 각각 5그루씩, 총 10그루를 ‘2025 올해의 나무’로 선정했다.

보호수 분야에서는 광주 서구 왕버들, 강원 영월 소나무, 서울 송파 느티나무, 강원 인제 돌배나무, 부산 기장 꽈솔이 선정됐다.

이중 광주 서구 왕버들나무는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됐고 수고 10m, 나무 둘레 6.2m의 당산목으로 지정 당시 수령은 250년으로 현재 기준으로 290여 년이 지났다.

산림청은 지난해 9월부터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총 61그루의 보호수, 노거수를 추천받아 전문심사단의 서류



풍암동에 위치한 왕버들 나무.

점 역할을 하는 보호수라고 평가됐다.

당초 산림마을 입구에 서 있던 나무는 택지개발과정에서 자칫 뿌리째 뽑혀 나갈 뻔 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1998년 현 위치로 옮겨졌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노거수 분야에 전북 고창 아泯나무, 충북 보은 왕버들, 전남 진도 배롱나무를 선정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보행자 중심 도로·콘텐츠 개발로 문화 거점 도약을”

ACC상권 활성화 포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문화 생태계의 중심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행자 중심 도로 연결, 시민 참여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광주 동구의회에 따르면 전남 동구 의회 소회의실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권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김현숙 동구의원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ACC 상권의 현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를 매개로 도시를 만들다’란 주제 발표에 나선 이승권 조선대 명예교수는 “ACC 내부 콘텐츠와 주변 상권이 연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가에 특화된 공간 배치가 없어 방문객 유입이 어렵다”며 “공공예술을 통한 환경 개선, 시민 참여형 운영체계 구축으로 문화적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자 중심도시 설계는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자연스러운 상권 턱심을 유도하며 도시의 활력에 도움을 준다”며 “ACC, 조선대 입구, 푸른길, 양립동, 예술의 거리에 작품 전시, 쉼터 조성, 공연 공간 확보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율리 “계절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은



지난 7일 동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권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열렸다.

이승권 조선대 교수 “작품 전시·공연 공간 확보해야”

이여진 이사, 야간관광 활성화·음악박람회 개최 제언

일년 내내 활기찬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조선대학생, 상인회, 시민 등 시민 참여형 운영체계는 ACC 상권 활성화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이다 특색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민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여진 동구문화관광재단 이사는 ‘원도심 활력 증진과 상권 활성화’ 주제 발표에서 “복합쇼핑몰 등장으로 총장로·금남로·황금동·동명동 등 원도심 상권은 위기에 직면했다”며 “캠퍼스타운 조성, 야간관광 활성화, 음악박람회 개최 등으로 원도심

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동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비롯해 지자체·의회·조선대·ACC·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문화관광, 도로교통 등 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의회가 조례 제정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자체는 각 실무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동 브랜드 매장’, ‘단일 브랜드’로 상권 자생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승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